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10. 31.(화) 16:00 <11.1.(수) 조간> 배포 2023. 10. 31.(화)

한·중·일 3국 환황해(環黃海) 지역경제협력, 정상궤도로 복귀

- 제21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4년 만에 중국 다롄에서 대면 회의 열려
- 중국 흑연 수출통제조치(12. 1일 시행) 관련, 한중 통상당국 간 긴밀히 소통키로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문규), 중국(상무부), 일본(경제산업성 규슈경제산업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21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가 10. 30.(월)~31.(화) 중국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시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김종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 왕리핑 중국(中) 상무부 아주사장, 나무라 키미히데 일본(日) 경제산업성 규슈경제산업국장 등을 대표로 한·중·일 3국의 중앙과 지방정부, 기업, 경제단체 등에서 300명이 참석하였다.

* 환황해 3국 간 무역·투자·산업기술협력을 위해 '01년 시작된 3국 간 정기적 협력체

2001년 제1차 회의 이후 개최되어 온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는 이번 제21차 회의에서 '산업·공급망 원활화, 환황해 지역 협력 및 발전'을 주제로 '19년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3국의 지역 협력과 기업 간 무역 증진·경제·기술 교류사례 등 협력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환황해 지역 내 경제·기술 교류와 산업 협력 촉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편 이번 회의와 연계하여 개최된 「경제무역심화포럼」에서는 한·중·일이 모두 가입한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을 활용한 3국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도 논의되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김종철 통상협력국장)와 중국 상무부(왕리핑 아주사장)와는 별도 국장급 양자 회담을 통해 양국 간 통상 현안을 논의하였다. 우리 측은 최근 중국 정부의 중국산 흑연 수출통제 조치 발표로 인한 지역 내 배터리 공급망 불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원만한 공급망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우리 측은 일본 경제산업성(규슈경제산업국)과도 별도 국장급 회담을 진행하여서 한·규슈 간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담당 부서	통상협력국 동북아통상과	책임자	과 장	주원석 (044-203-5690)
		담당자	사무관	김민섭 (044-203-567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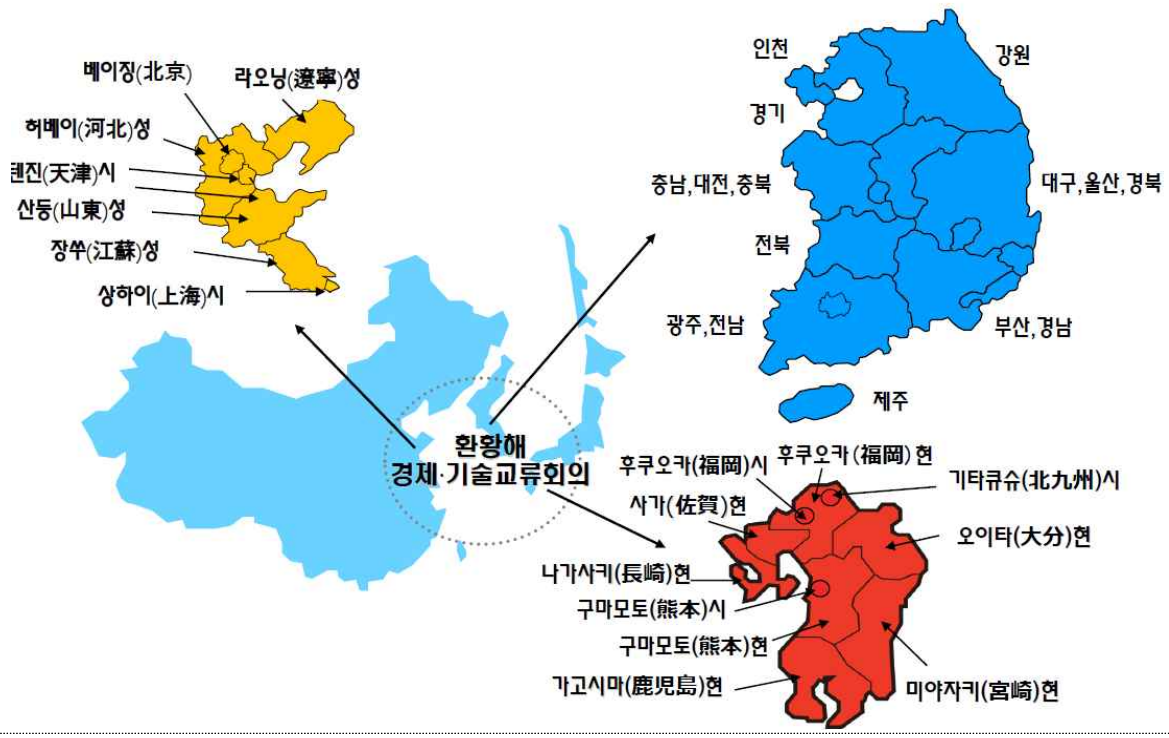
□ **(배경)** ASEAN+3 정상회의('99, '00)에서 한·일·중 3국 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식, 환황해권의 정기적 협력 채널을 구축하는 데에 합의

□ **(목적)** 한일중 환황해권 경제교류 확대를 통해 3국간 무역·투자·산업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동북아 자유무역권 구상의 기반을 구축

□ **(현황)** 제1회('01.3월, 일본 후쿠오카) 개최 이래 韓-中-日 順으로 개최

○ 총 20회 개최, 참가자 6,471명(韓 1,771명, 中 2,370명, 日 2,322명)

한·중·일 지역간 경제교류회의 교류지역



► 한국(16개 광역지자체) :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시

► 중국(3시 4성) : 베이징시, 톈진시, 상하이시, 랴오닝성, 허베이성, 산둥성, 장쑤성

► 일본(큐슈지역 7개현 3정령시) :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구마모토현, 오이타현, 미야자키현, 가고시마현, 후쿠오카시, 기타큐슈시, 구마모토시